

경찰 “이준석 수사로 윤핵관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

“어떤 전화도 없었어, 원칙에 따라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할 것”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어떠한 접촉

과 전화도 없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경찰청 수사는 어떠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여당 의원들이 경찰 고위직을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청장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중 끝나는 이전 대표 사건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향후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범리검토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있다. 원칙과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실무진 쪽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경력) 기재 건이 18건 이상이다”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일회용품 줄이기 나선 외식업계, 다회용기 이용한 배달 확대한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주방에서 배달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업체, 배달업 업체와 함께 다회용기 배달을 운영하는 ‘제로식당’을 확대한다. 제로식당 서비스는 강남구를 시작으로 9월 관악구, 10월 광진구·서대문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식중독 예방’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실 특별점검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생사고 사전 차단 위해 추진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초·중·고 개학이 진행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2학기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개학시기 집중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

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식시설 관리 상태를 비롯해 식재료 보관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식생활관 방역 관리, 소독제 구비 여부 등도 살펴본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생사고와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준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53명에 수습액 뜯어낸 보이스포싱 조직 국내총책 등 검거...총 32억원 피해 발생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34명 검거

경찰이 5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면 권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질러 3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보이스포싱 범죄 조직원 34명을 검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보이스포싱 조직 국내 총책 A(47)씨와 B(42)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수거책·전달책 및 환전업자 21명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포싱 조직 활동을 통해 총 53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6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4억9000만원을 뜯겼다고 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뒤, 1차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대면해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전달책은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화장실, 자전거 보관함 등 미리 지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은닉했고, 3차 전달책은 피해금을 다시 수거해 국내 총책에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 총책은 이 돈을 환전업자에게 전달해 해외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약 1억8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회수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스

무등산국립공원 내 충민사 전봇대 불

29일 오전 4시 44분께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국립공원 내 충민사 앞 전봇대에서 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전봇대 일부가 타면서 주변 마을 20여 가구와 군 부대 주둔지에서 일시 정전이 발생했다.

현재는 긴급 복구를 거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고압 선로에서 단락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민사는 정묘호란 당시 평안도 안주성에서 후금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광



주 출신 ‘구성공’ 전상의 장군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다. 이슬비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